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 “장보고 정신 이어받아 글로벌 시장 석권”

“장보고 정신을 이어 받아 광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신라시대 청해진대사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로 황해와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국제무역 승자가 됐다”며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해외시장을 광주광산업이 공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광산업의 미래를 고대 해상교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정신에서 찾고 있다. 한정돼 있고 내부 경쟁이 치열한 국내를 벗어나 무한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광주 광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다.



강 시장은 '광주의 CEO' 라 자임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단일 수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54억달러 규모의 LED투광등 수출협약을 월드 비전라이트와 체결했다. 뻣뻣한 해외일정과 낮은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강 시장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는 행복한 표정이 돋보인다.

강운태 시장은 인터뷰 내내 '광산업 블루오션' 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블루오션은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 즉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경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산업을 말한다" 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LED시장에 잇따라 진출했듯이 광산업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은 무의미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블루오션은 높은 수익과 무한한 성장이 존재하는 막강한 시장" 이라며 "중국, 중동 등 신흥자본국과 대진진 이후 해외 이전 움직임이 있는 일본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올 초부터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을 잇따라 찾아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무려 54억 2,200만달러에 달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LED가로등을 교체키로 했으며, 이탈리아는 베니스 뱃길을 광주광산업체가 생산하는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미국과 독일은 2020년부터는 기존 형광등과 백열등을 폐기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정책을 도입할 예정" 이라며 "결국 대안은 LED와 같은 환경친화형 광산업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고 전망했다.

지난 2006년 LED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되고 LED

조명산업에 대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광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2~3년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 이라며 "대기업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출물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강 시장은 400억원을 들여 LED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공공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적극 추진해 지역 중기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OLED를 비롯해 레이저, 적외선렌즈 등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육성 의지도 밝혔다.

그는 "세계적 광학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광학마이크로시스템 연구소(IPMS)가 2,100억원을 투자해 연구소를 광주에 설립하기로 했다" 며 "프라운호퍼와 공동으로 OLED를 비롯해 광센서, 레이저, 적외선 렌즈 분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첨단산단을 포토닉스 밸리로 만드는 그림을 매일 그리고 있다" 며 "이 그림이 완성되면 광주 광산업은 2015년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시장은 광산업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1,000억원대의 중견기업을 적극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운태 시장은 "광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재도약할 수 있는 연구개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광주연구개발특구사업과 연계해 광융합 연구클러스터도 육성할 방침" 이라며 "글로벌 마케팅 전담팀 구성 등 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능을 대폭 보강해 '광산업 블루오션' 을 적극 개척하겠다" 고 덧붙였다.

지식융합연구소장  
이인식



## “지식융합산업 육성 할 때”

“과학은 인생사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 문화 등을 조합하고 다듬어 세상에 선보이는 ‘지식융합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은 지식과 과학, 기술, 문화와의 융합을 거듭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있는 자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시너지를 얻는 것”이라며 “융합은 흔히 과학기술 분야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더 큰 영역은 지식과 인문, 예술 등과의 연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에 오르는 등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 소장이 ‘지식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배경이 사뭇 궁금해진다.

이 소장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과학칼럼리스트다. 어렸을 때부터 열정과 희열을 가지고 해오던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 안정적인 직장에 사표를 내고 20여년 전부터 과학과 문화 등 융합기술에 관련된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에 몰입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잠자리에 일어나는 이 소장은 지난 10년간 IT 및

경제분야 신문과 잡지를 읽고 인터넷으로 해외 과학관련 사이트를 빠짐없이 살펴봤다. 또 하루 평균 8시간 책을 읽고 원고를 쓴다. 강산이 한번 변할 동안 과학분야만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식융합’에 대한 내공을 키우게 됐다.

이 소장은 “매일 같이 과학과 기술, 융합과 관련된 신문과 서적을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융합기술이 가야할 방법을 나름대로 진단하게 됐다”면서 “어떤 분야든 10년을 집중하면 방향이 보인다. 그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가면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게된다. 이것이 융합의 본질”이라고 해석했다.

이 소장은 또 “최근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연구가 강조되면서 너도나도 융합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융합기술 아카데미를 알리고 권위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작은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융합산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소득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성장동력이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식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칼럼과 저술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광통신(주) 대표  
박인철

## 국내 첫 수질측정용 광센서 시스템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광센서 시장을 대비해 다양한 융복합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수질측정용 광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글로벌광통신 박인철 대표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3년간 10여명의 연구진들이 구슬땀을 쏟은 광센서 R&D성과물이 빛을 보게 되면서 엑시머 UV램프를 활용한 수질정화 시스템 등 후발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수질측정 모니터링시스템은 광센서를 이용해 물의 용존산소량과 산성도(pH), 탁도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

박 대표는 “수질측정 시스템은 기존 전기화학센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경제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시너지를 위해 태양광을 활용,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살균하는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적조현상으로 패죽음을 당하는 물고기들을 보며 “적조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심했다. 여수 거문도가 고향인 박 대표는 어릴적부터 이같은 숙제를 가슴속에 담아 둘 정도로 수질 개선 시스템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

박 대표는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다면 농어업 뿐만 아니

라 국내 산업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 이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용존산소량 부족시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비롯해 살균 및 정화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수질 측정 및 개선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통해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급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같은 기관들이 시장자료와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수질센서의 세계시장 규모는 8,000만 달러 정도로, 물 관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큰 성장이 예상된다”며 “광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주력해 내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에 도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